

● **부스스!** '총무원장 스님의 감로수 관측'

## 종도 '동질감 제고' 위한 행정수반의 과감한 실천

'감로수' 관측을 위해 총무원장 스님은 또 나섰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월27일 서울 용산 하나로마트(하나로클럽)를 찾아, 동행한 조계사 신도들에게 감로수의 구입을 권유하고 마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지난 2월9일 양재동 지점에 이어 두 번째 현장방문. '물'은 '감로수'는 (주)석수와플러스와 손잡고 만든 생수로, 현재 전국 100여 개 농협 하나로마트 지점에 납품되고 있다. 다른 제품에 비해 미네랄이 많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무엇보다 슬러노후복지제도의 정착과 종단 재정 확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종도들의 관심과 호응이 요구된다. 종단의 행정수반이자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지도자인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발품을 판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해(2011년) 감로수의 매출액은 4억8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1억2000만원이 종단의 몫으로 돌아왔다.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당장 손에 쥌 수 있는 돈이다. 실리도 실리지만 명분이 확실하다. 수익금은 전액 슬러노후복지기금으로 예치된 상태다. 종도들의 동질감을 높이고 종단의 재정적 외연을 넓히는 작은 실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매년 사찰예산 10% 중액' 방화라고 맥락이 달다. 두 번씩이나 세간의 저

자서서 감로수를 알리며 몸을 낮춘 총무원장 스님의 바람은 일관된다. "일선 사찰의 주지 스님들이 별도로 서 단 1분이라도 감로수에 대해 설명하고 신도들의 구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비유'로만

지난해 매출액 25% 환원  
 슬러 노후복지기금 예치  
 종단의 재정적 외연 확대  
 또 하나의 실천으로 주목

'하나로' 이어 '롯데슈퍼'  
 편의점까지 유통망 '확대'  
 일선 주지 스님들 범문  
 뒷받침되면 효과 극대화

때도는 2000만 불자의 지력을 실제로 보여 달라는 것이다.

최광준 석수와플러스 사장, 김현근 하나로클럽 서울지역본부장 등 제휴업체 임원들은 양재동 관측에 이어 용산에도 마중을 나왔다. 첫 번째 방문이 그저 반가웠다면, 두 번째엔 책임감이 보였다. 총무원

장 스님은 "통상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2-3년의 홍보기간이 필요하다"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계종 총무원장이 몸소 움직인 만큼 상당한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광고 집행 등 실질적인 행동을 두려한 정도 눈길을 끌었다. "종단이 생수를 파는 일에 대해 찬반의견이 엇갈리지만 현실이 이상은 없었으니 다르다"며 "종단 안정과 발전의 기틀이 되는 일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일정한 성과를 내기 전까진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각오다.

한편 총무원장 스님의 현장관측 보도 이후 서울 안국선원(주지 수불스님)과 도선사(주지 선묵스님)도 대방구매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로수 사업팀은 조만간 중형 마트인 롯데슈퍼와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까지 유통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무원장 사무부는 감로수 판매 외에도 농협과의 금융거래 일원화, 일선 사찰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 등 공동사업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33대 집행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종단 수익구조 확대 및 재원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물론 관건은 감로수의 성공이다.

정영섭 기자 ts@bulgyo.com



지난 2월28일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에 들어서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한하게 웃으며 합장을 인사한다. 총무원장 스님은 2010년에도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신재호 기자 ar201@bulgyo.com

## '나눔의 집' 위문 '격려와 소통' 걸음 계속...

### 총무원장 스님, 두 번째 제주도 할머니들이 '악삭'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3·1절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헛타인 '나눔의 집'을 위문했다. 지난 2월28일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원장 원행스님)을 찾은 총무원장 스님은 대형 TV를 기증하고 상처 입은 할머니들을 위로하면서 격려와 화합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한 할머니가 제주도

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을 기리는 추모탑에 헌화했다. 이어 법당을 참배한 뒤 생활관으로 이동, 대중공양을 올리며 할머니들의 안부를 묻고 주거환경을 살피었다. 아울러 정부와 함께 위안부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는 60인치 대형TV를 기증했다.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은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에 의해 성적 희생을 강요받았던 생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살

처 작업했다. 특히 기존의 교과서가 서양철학과 신학에 바탕을 둔 것과 달리 동서양 철학사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두 가지로 발간되며 각각 8개의 대단원과 32개의 소단원 등 300여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허정철 기자 hp@bulgyo.com

의 터전이다. 불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모금으로 지난 1992년 서울에 첫 캠퍼를 개소했으며, 1995년 지금의 자리로 옮겼다. 5940㎡(1800평) 부지에 생활관, 역사관, 법당, 수련관, 사무동, 집중치료동 등의 시설을 갖췄다. 현재 8명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편 이날 위문에는 나눔의 집 원장 원행스님, 총무원장 사무부장 혜경스님, 공익법인 아들다운동행 사무총장 혜일스님,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종선스님 등이 함께했다. 경기도 광주=정영섭 기자

### 법경·용하스님 등 8명 한글염불지도교수 위촉

전국 승가대학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한문염불의례를 지도할 '한글염불지도교수'로 법경, 용하, 대광, 선훈, 보경스님(이상 비구)과 성문, 일각, 금강스님(이상 비구니) 등 8명이 선별됐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스님)은 2월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본과회의실에서 한글염불지도교수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8명의 한글염불지도교수 스님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연수를

마치고 종단 행사교육 및 기본교육기관에서 한글염불의례를 지도한다. 이 자리에서 교육원장 현승스님은 "의례의식은 부처님 가르침의 총화이자 전법교화의 방편으로, 한글염불의례의식 상용화로 교화효과도 극대화될 것"이라며 "한글염불도감화안스님을 비롯해 8명의 교수자 스님들 모두 종단의 한글염불의례교육을 통한 한글염불의 대중화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다. 대광스님은 동국대 국악과에서 법패를 전공했고, 선훈스님은 삼화사 수목재시현 및 프랑스 파리대학 문화원초청 작법공연에 참여했다. 보경스님은 서울 조계사 영산재시현 및 행자교육원 예식의개안에서로 활동했다. 비구니 스님 가운데 성문스님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전승으로 행사교육원 31기 염불인대사를 맡았으며, 일각스님은 한국불교전통의례전승원에서 법패를 2년간 수학했다. 금강스님은 행사교육원 승의사와 예식의례 일에서 소임을 맡았다. 허정철 기자

### 불교 관점에서 집필 종교교과서 '생활과 철학' 발간

불교적 관점에서 쓴 최초의 중·고등학교 철학교과서 《생활과 철학》(사지)이 발간됐다. 26개 불교종단학교장 및 전국 교범사단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는 지난 2월17일 '현직 중등학교 교범사 8명이 직접 내용을 쓰고 대학에서 불교

학, 철학을 전공한 교수들의 감수를 거친 철학교과서 《생활과 철학》이 서울시 교육감 인정도서로 최종심의를 통과해 발간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출판사에서 발행한 이 책은 김용득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들 교재편찬위원장으로 박영동 동국대부속에서 교범사 8명 교과서개발위원장을 맡아 2년에 걸쳐

서 작업했다. 특히 기존의 교과서가 서양철학과 신학에 바탕을 둔 것과 달리 동서양 철학사상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 두 가지로 발간되며 각각 8개의 대단원과 32개의 소단원 등 300여 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돼 있다. 허정철 기자 hp@bulgyo.com

지면안내  
 4월 2주(3월 26일~4월 1일)  
 제2주 경주마을에서 정기법회 연다 ..... 4면  
 금강선원 혜기스님과 총무원 의원이 만났다 ... 10면  
 '석학스님 헌신100주년' 기념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13면

##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우리에게 청빈한 삶과 서약할같은 수행으로 우리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해주신 우리 시대의 부처 퇴옹당 성철스님께서 이 세상에 나누신 지 100주년을 맞습니다.

### 퇴옹당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 다례

퇴옹당 성철 큰스님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큰스님 탄신일에 맞추어 다례를 봉행합니다.

**일 시** 불기 2556(2012)년 3월 11일(음 2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장 소** 조계사 대웅전

**주 최** 성철스님문도회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후 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다례에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 오후 1시부터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관람 안내를 합니다.)

###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

대한불교조계종 출법 50주년과 성철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이하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과 공동으로 성철스님 일대기 특별전 <자기를 바로 봅시다>를 개최합니다.

**전시일정** 2012년 3월 9일(금) ~ 2012년 6월 3일(일) 매주 월요일 휴관

**개막행사** 2012년 3월 8일(목) 오후 3시

**장 소**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주 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재)백련불교문화재단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불교신문, 현대불교, 범불신문, 불교텔레비전(BTN), 불교방송(BBS) (회관은 정중회 사당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오르게 남을 도우시다"

성철스님문도회 (재)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서울 중로구 수송동 두산위브빌리는 1232호 / 02) 2198-5100 / kosa21@dau.net / www.sungchol.org